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道 人口分布의 變化와
特性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韓 彰 厚

2 0 0 3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道 人口分布의 變化와
特性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金 泰 一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韓 彰 厚

2 0 0 3

濟州道 人口分布의 變化와 特性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金 泰 一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7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建築工學 專攻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韓 彰 厚

韓彰厚의 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7月 日

委 員 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目次

Table Contents	ii
Figure Contents	iii
Summary	v
I. 序論	
1. 研究의 背景과 目的	1
2. 研究의 方法 및 章 構成	3
3. 既存 研究의 動向	4
II. 濟州道 人口分布變化의 巨視的 分析	
1. 濟州道 人口分布의 變化	6
2. 行政區域別 人口分布의 變化	13
3. 年齡階層別 人口占有率 變化	19
III. 地域別 人口分布變化를 誘發시키는 原因分析	
1. 道路開設에 따른 人口分布의 變化와 影響	23
2. 宅地開發에 따른 人口分布의 變化와 影響	28
3. 濟州市 宅地開發과 行政區域別 人口分布의 變化特徵	30
IV. 人口移動特別調查 原資料에 의한 人口移動 特性分析	
1. 人口移動의 一般的 特性	39
V. 結論	
1. 分析 整理	46
2. 展望과 課題	47
參考文獻	49

Table Contents

Table 1	The rate of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by the year	8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change in place of residence between in 1990 and in 1995	9
Table 3	The change of population in Jeju city and Seoguipo city by the year	14
Table 4	Population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nfluence of outflow by factor analysis	17
Table 5	Regression formula by rank-size rule	18
Table 6	The rate of population occupation by the age group bracket	20
Table 7	The rate of population occupation by the age group bracket in Jeju city, Bukjeju-gun, and Namjeju-gun	21
Table 8	The present condition of abolition of a school	22
Table 9	The present condition of road	23
Table 10	Change of population at dongs in Sogwipo city	29
Table 11	Present state of development of housing lot district	30
Table 12	Component ratio of housing construction lot	31
Table 13	Change of population at dongs in Jeju city	32
Table 14	Change of population in development district of housing lot	33
Table 15	Regression formula by rank-size rule	38

Figure Contents

Fig. 1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Study	4
Fig. 2	Change of population in Jeju	7
Fig. 3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70	11
Fig. 4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80	11
Fig. 5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90	12
Fig. 6	The spread of population in 2000	12
Fig. 7	The change of population by the administrative section in Bukjeju-gun.	15
Fig. 8	The change of population by the administrative section in Namjeju-gun	15
Fig. 9	Relation of population size and rank	18
Fig. 10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1980s	25
Fig. 11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1990s	26
Fig. 12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2000s	27
Fig. 13	The change of population in development district of housing lot	34
Fig. 14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70	36
Fig. 15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80	36
Fig. 16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90	36
Fig. 17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2000	36
Fig. 18	The analysis of economy influence by change of population distribution 1980, 2000	38
Fig. 19	Age in full	39
Fig. 20	Sex distinction	40
Fig. 21	Marriage condition	40

Fig. 22	Economic activity condition	41
Fig. 23	Relation with the head of household	42
Fig. 24	Educational standard	43
Fig. 25	Type of housing	44
Fig. 26	Type of Occupation	45
Fig. 27	The scale of housing	45



A Study on change of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in Jeju

Han, Chang-Hoo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Graduated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Il*

Summary

The city is rapidly increasing in its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population distribution by regional groups in Jeju island which is within the limits and to grasp the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distribution.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primary factor of population movement is construction road and development of housing lot etc.

As a results of analysis, population tends to concentrate in Jeju city after 1980s, on the other hand Namjeju-gun and Bukjeju-gun are rapidly decreasing in its population. Especially an aging agricultural society is formed rapidly because a great number of aging people over 60 years old occupy agricultural society.

The population tends to concentrate in Jeju city because the increase of automobile makes roads constructed and widen.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primary factor of population movement is construction road. Also in terms of development of housing lot in Jeju city, a general tendency of housing construction is towards the apartment house and most people concentrate into the development districts. This present

state caused deepening of population unbalance among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most people moved into Jeju city are presumed as laborers. Besides they show not only the low rate of housing occupation but also the small-scale of housing.

The population unbalance among administrative districts can be obstacle to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Therefore synthetic counterplan must be considered unless people concentrate into Jeju city



I. 序 論

1. 研究의 背景과 目的

가. 研究의 背景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선진국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꾸준히 일어났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면하고 있는 여러 제약 조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소득, 취업 기회의 확대, 교육, 문화, 행정, 의료 서비스 등이 유리한 도시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도시와 농촌 양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다. 도시에서는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여 극심한 교통난, 주택난,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공해 등의 환경문제와 빈부격차의 심화, 각종 범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경제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서비스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이 피폐하게 되어 농촌과 도시주민과의 삶의 질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제주와 같은 도서(島嶼)지역의 경우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적 인구분포는 지역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이 2000년에 실시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 제주도 인구는 1995년도에 비하여 1.47% 증가하였으나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제주시 인구는 8.3% 증가하여 주로 제주시 지역으로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시로의 급속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의 발달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1시간 생활권이 구축되면서 굳이 제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적어진 점과, 70년대 후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로 정부 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문화·복지·교육 시설 등이 제주시에 집중되면서 생활 편의와 함께 섬 지역의 특성 상 제주시로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중된 제주시의 인구집중은 극심한 교통난을 초래하고, 증가하는 인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초등학교는 갈수록 과대화되어 학교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내에서도 택지개발지역으로만 인구가 집중되면서 단위행정구역간에 심각한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은 감귤을 비롯해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1차 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제주시로 이동하면서 급속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연령계층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력이 높은 연령계층이 제주시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 농촌경제 활성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시·군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불균형적 인구분포는 지역간, 부문간 불균등 발전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 되는 측면도 있다. 한 사회가 바람직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지역간에 서로 균형적 발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로의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시·군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제주도의 지역별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인구분포 변화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研究의 目的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인구분포의 변화와 특성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의 통계적 추이를 분석하고,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인구분포의 변화와 제주시 인구증가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研究의 方法 및 章 構成

가. 研究의 方法

본 논문은 도서(島嶼)라는 제한적인 공간을 가진 제주도내에서의 인구분포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도로개설과 택지개발에 있음을 가설로 하여, 즉 도로개설은 지역간 인구분포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도로가 개설될수록 인구분포의 변화는 심화될 것이다. 특정지역에 택지가 개발될수록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집중화로 인구분포의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인구분포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의 통계적 추이 분석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구·주택 총조사」의 1970년~2000년 사이의 약 30년간 인구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도로개설과 인구분포변화 및 택지개발로 인한 제주시 인구분포변화의 시계열분석은 ESRI사의 Arcview GIS 3.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관련자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및 행정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인구분포변화에 따른 지역별 경제영향정도의 파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제주상공명감」의 산업체 현황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WIN10.0을 사용하였다.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분석은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이동특별조사(1997년)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研究의 章 構成

본 논문은 제주도 인구분포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인구분포 변화의 거시적 분석으로, 제주도 및 행정구역별 인구분포의 변화와 연령계층별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간 인구분포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주 요인인 도로개설과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와 행정구역별 경제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구이동특별조사원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론 부분에서 분석되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균형적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3. 既存 研究의 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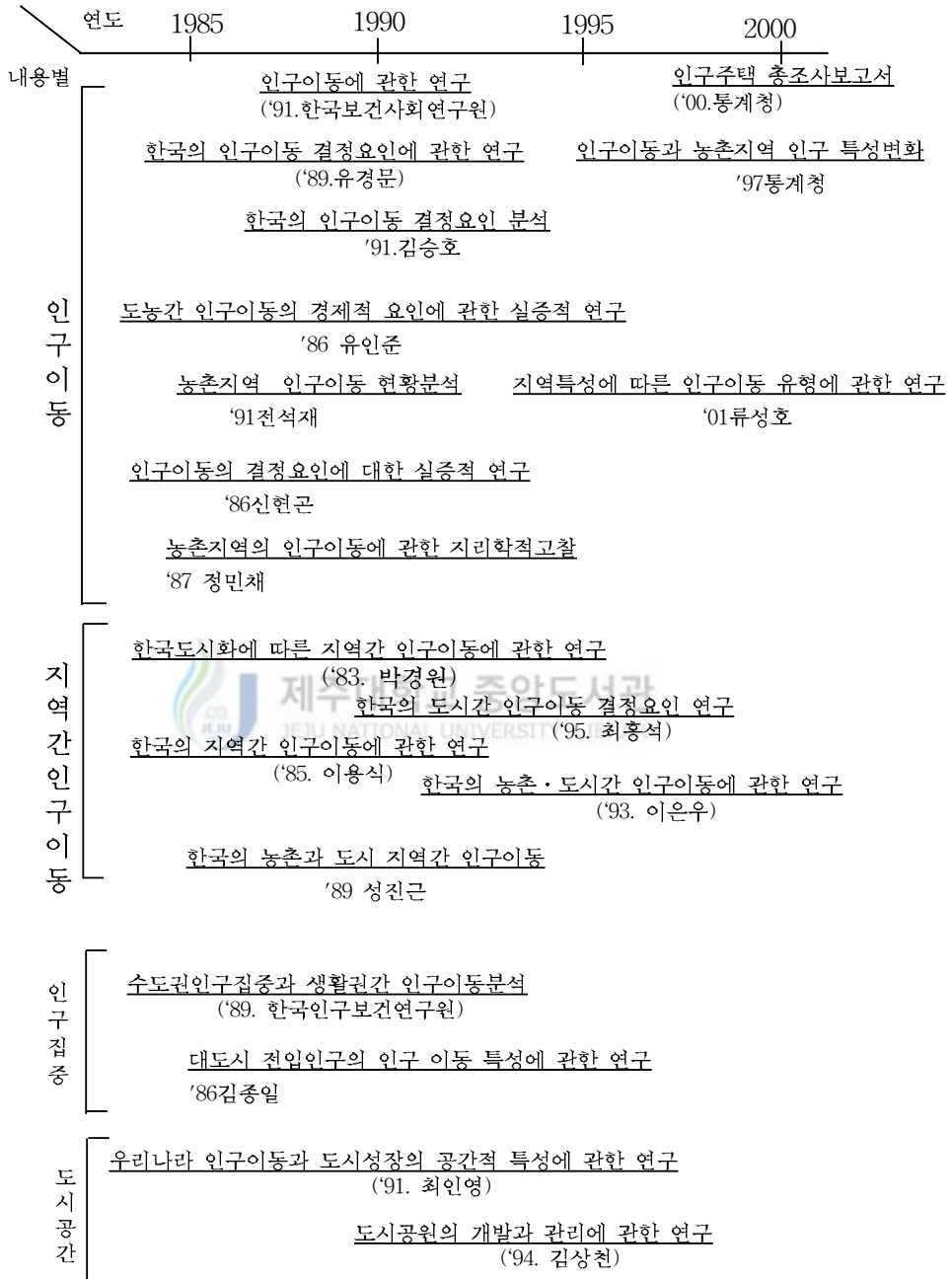


Fig. 1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Study

앞의 내용에서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지역간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원(1983년)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지역간 인구이동에는 전입지와 전출지의 사회, 경제적 격차, 그리고 높은 교육열이 인구이동요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유경문(1989년)은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도시간의 교육기회의 차이가 한국의 인구이동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각 도시의 쾌적도 차이가 인구이동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승호(1991년)도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논문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기회를 확충시킬 수 있는 공업단지의 조성과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농공단지의 개발과 자본 및 신기술의 유치, 그리고 사양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기업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한계농의 직업적 전환 프로그램 등이 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역간 인구이동연구로서 최홍석(1995년)은 1995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연구’에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주자들은 이주의 동기를 경제적 측면에 두고 있는 반면 대도시에서 빠져 나와 중·소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최인영(1991년)은 1970년~1989년의 우리나라 5대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 인구이동과 도시성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수도권 인구의 비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중·소 도시를 육성하고 농촌 지원형 소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도시 지향인 인구를 지방 중소 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은우(1993년)는 한국의 농촌·도시간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이동 이유를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교육적 요인, 그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이 많았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대도시 중심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해마다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있으나, 제주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분포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시·군간에 인구분포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의 특성이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의 거시적 분석

1. 제주도 인구분포의 변화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인구이동 요인의 발생으로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인구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변동이 인구의 생물학적 과정이라면 인구이동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간 인구이동은 대개 전출지와 전입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자연적 조건에 차이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즉, 인구이동은 현재의 환경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마련인데, 전출지에서 밀어내는 요인과 전입지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인구이동은 인구이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구이동 요인으로 인하여 제주도내에서도 제주시 지방의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 시·군간에 불균형적 인구분포를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인구분포변화추이를 보면 제주도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제주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남·북제주군 인구는 1980년을 기점으로 감소현상이 현저하고 또한 서귀포시 인구는 1990년도부터 감소현상을 나타내어 지역별 인구분포변화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 2 참조). 또한 1970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인구분포변화를 보면 1970년도 358,085명에서 2000년도 513,260명으로 30년 사이에 약 43.3%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전국증가율 49.4%보다는 낮은 수치로서, 이는 제주도가 도서(島嶼)라는 지역의 특성 상 타 시·도에서의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http://achs.kedi.re.kr/text_book/class_3/sm/smm16_0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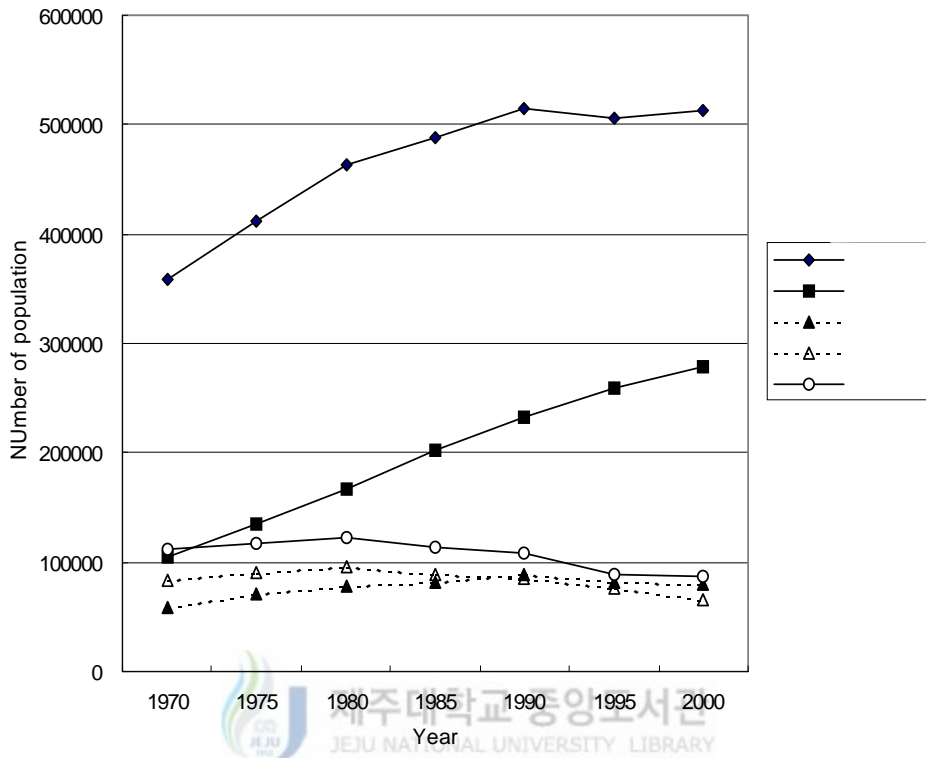


Fig.2 Change of population in Jeju

자료: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서귀포시 인구는 1985년도부터임

가. 연도별 인구 증감을 변화

Table 1은 5년 전 인구수 대비 인구증감율을 나타낸 것으로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제주도 인구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5년에는 오히려 인구가 1.8% 감소하고 2000년에는 1.5%의 증가에 그쳤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1981년 7월 1일 남제주군에서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분리하여 시(市)로 승격한 서귀포시는 1990년도 이후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제주군의 인구도 1985년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5

년도에는 18.4%라는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남제주군 또한 서귀포시가 승격되면서 자연적 인구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990년도 이후 10%이상의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군간의 인구분포변화는, 출생과 사망률에 의한 인구증가 정도를 예외로 하면 인구이동으로 인한 제주시 인구집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주시와 시·군간 인구분포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1 The rate of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by the year(%)

연도 구분	1975/1970	1980/1975	1985/1980	1990/1985	1995/1990	2000/1995
제주도	15	12.4	5.5	5.3	-1.8	1.5
제주시	29	24	21	15	11	8.3
서귀포시	-	-	-시 승격	7.2	-6.8	-1.7
북제주군	3.6	4.9	-6.7	-4.6	-18.4	-1.6
남제주군	13.5	8.4	-48.4	-5	-10.6	-1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http://www.nso.go.kr>)

나. 1990년과 1995년의 거주지 변화 비교

인구이동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거주지 변화를 살펴보면(Table 2), 1990년과 1995년에 평균 5만 명 이상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시부(市部)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으며, 제주 지역의 경우 평균 25,000명 이상의 인구이동이 있다. 특히 군부(郡部)에서의 이동이 많으며 이들 인구의 대부분은 제주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인구이동을 연령별로 보면, 1995년도에는 1990년도에 비해 5세~24세 인구이동은 감소하고 25세~44세와 45세~64세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및 근무회사, 각급 학교 등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발달로 승용차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해졌고, 또한 제주시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주거확보가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세~24세 인구이동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초·중학교 학생들의 이동 혹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change in place of residence between in 1990 and in 1995 (person)

1990년 5년 전 거주지												
전국				서울	부산	전남	제주		제주도내 연령별 이동			
									5~24	25~44	45~64	65~
계	시부	군부	기타	8,451	5,115	3,503	25,559		12,593	10,808	1,516	682
							시부	군부				
54,706	30,974	23,293	439				7,972	17,627				
1995년 5년 전 거주지												
계	시부	군부	기타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제주도내 연령별 이동			
57,484	37,454	18,452	1,578	9,134	5,638	3,775	25,360		5~24	25~44	45~64	65~
							시부	군부	11,846	11,144	1,867	503
							10,076	15,284				

(자료 :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1990년, 1995년)

다. 인구분포변화의 시계열 분석

Fig. 3~6은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행정구역별 인구분포변화를 10년 단위로 하여 인구의 증감정도를 인구규모에 따라 색상별 농도로 표시하여 시계열화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시 승격이 되기 이전의 중문읍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표기하였다.

Fig. 4의 1980년도 인구분포도를 Fig. 3의 1970년도 인구분포도와 비교해 보면 모든 지역의 색상이 짙게 나타나 1970년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율적으로는 제주시 인구는 60%정도 증가하였고 군 지역에서는 남제주군의 인구 증가가 북제주군보다 크게 나타났다. 단위 행정구역별로는 북제주군에서는 한림읍, 조천읍의 인구가 10%이상 증가한 반면 남제주군은 안덕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10%이상 증가하였다.

Fig. 5의 1990년도의 인구분포도는 제주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1980년도에 비해 색상이 얇게 나타나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는 제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북제주군 14%, 남제주군 10%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여 북제주군의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Fig. 6의 2000년도 인구분포도에서는 제주시만 색상이 더욱 짙게 표시되어 제주시 인구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타 지역은 색상이 얇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제주시로 인구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비율적으로 제주시 인구는 20%정도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 8.5%, 북제주군 20%, 남제주군 23%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한경면의 경우 40%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애월읍의 인구는 약간 증가하고 조천읍의 인구감소는 5.7%에 그쳐 제주시 인근지역의 인구분포변화가 타 지역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으로도 인구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감은 그 지역의 출생률, 사망률 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별 인구분포변화의 시계열분석 결과는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인구가 제주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제주시와 타 시·군간에 인구분포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3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7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Fig.4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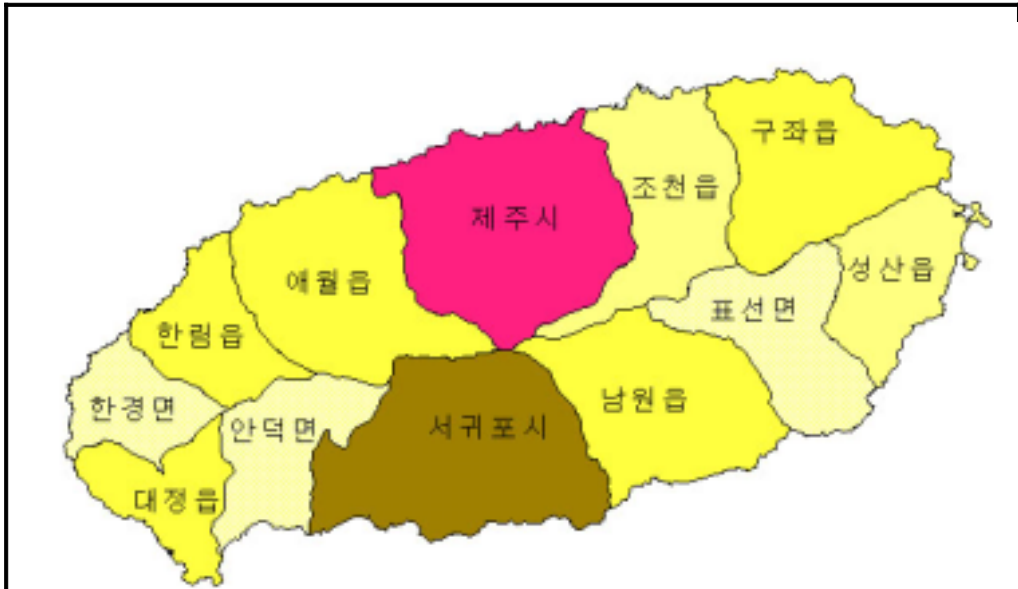


Fig.5 The spread of population in 1990



Fig.6 The spread of population in 2000

2. 행정구역별 인구분포의 변화

가. 제주시·서귀포시 연도별 인구분포의 변화

도시인구의 증가는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바, 첫째는 도시지역의 출생과 사망의 차이로 인한 자연증가, 둘째는 도시 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그리고 기존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및 읍의 시 승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도시인구의 증가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인 1966년부터 1970년 기간에는 총 도시인구증가의 73.5%가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였다.²⁾

제주도를 명확하게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군부(郡部)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면, 서귀포시 및 농촌 지역인 남·북제주군에서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이 제주시 인구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제주시 인구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약 2.7배정도 증가하여, 제주도 인구 증가 1.4배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5년마다 29,250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비율은 제주도 인구증가를 감소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1년 7월 1일 남제주군에서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 시(市)로 승격한 서귀포시는 신시가지 건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구흡입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구증가 정도를 보면 1990년도 통계에서는 5년 전 대비 7.2%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도 인구는 1995년도의 인구보다 오히려 1.8%가 감소하여 서귀포시 인구도 제주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참조).

도내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의 감소와 3.8%에 불과한 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3.9%(2000년 기준)로,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3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제주시 지향의 인구이동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박경원 ; “한국도시화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pp.1~2.

Table 3 The change of population in Jeju city and Seogupo city by the year(person, %)

구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제주시	인구수	104,493	135,081	167,719	202,921	232,643
	증가인구수		30,588	32,638	35,202	29,721	25,869	21,485
	증가율		29	24	21	15	11	8.3
서귀포시	인구수				82,311	88,287	82,298	80,860
	증감인구수					5976	-5,989	-1,438
	증감율					7.2	-6.8	-1.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http://www.nso.go.kr>)

나. 남·북제주군 연도별 인구분포의 변화

1980년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남·북제주군 인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Fig 7, Fig 8을 보면 1970년~1980년 사이에는 모든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한림읍 17.8%, 남원읍 23%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구좌읍과 안덕면은 각각 1.2%, 4.5%로 인구 증가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가 1980년~1990년 사이에는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는데, 북제주군은 애월읍 14.2%, 한경면 15%로 높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나, 조천읍은 1.7%로 매우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구좌읍은 1986년 4월 1일 연평리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자연 인구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높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0년~2000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이 2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애월읍은 5.5%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조천읍은 1.7%의 감소에 그쳤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제주시 지역으로 인구가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남·북제주군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제주시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인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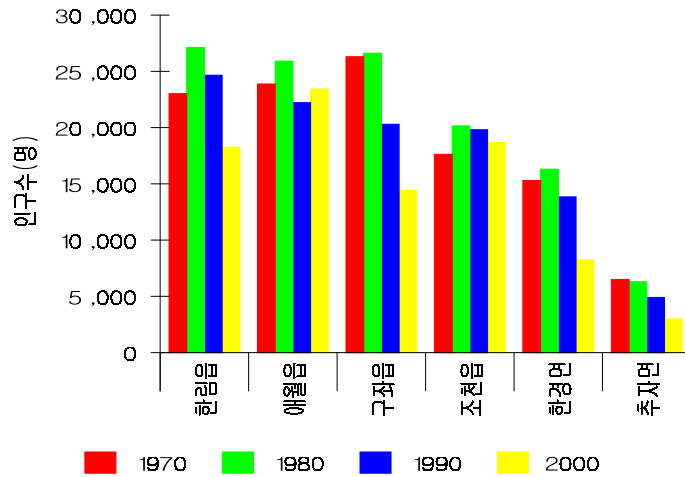


Fig. 7 The change of population by the administrative section in Bukjeju-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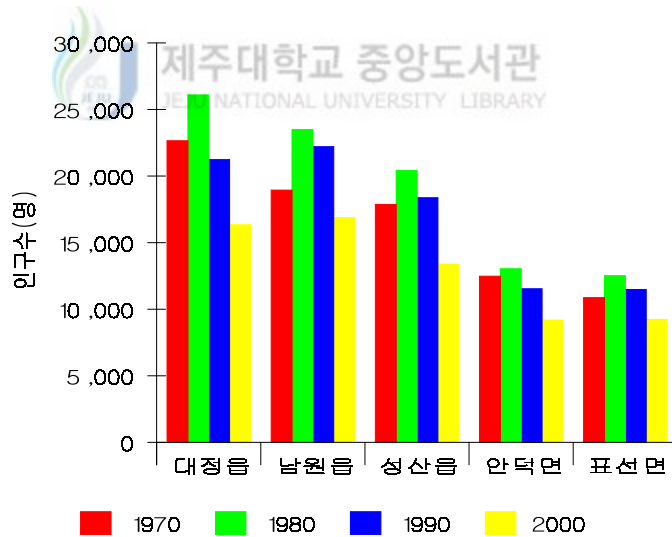


Fig. 8 The change of population by the administrative section in Namjeju-gun,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다. 인자분석에 의한 지역별 인구분포의 영향 분석

197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과거 30년간의 인구자료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구분포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4는 30년간 행정구역별 인구자료와 인자분석에 의한 행정구역별 인자득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출된 인자는 2개이다. 각 연도별 인구항목에 대한 인자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추출된 인자는 인구증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자득점이 높을수록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인자득점이 낮을수록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기여도가 높은 제1인자 득점의 변화를 보면,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Fig.5, Fig.6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제주시는 2.83591로서 가장 높은 인자득점을 나타내고 있어 제주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장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은 서귀포시로서 -1.16122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구좌읍이 -0.91465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표선면이 약간의 인구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한림읍, 애월읍, 대정읍 등의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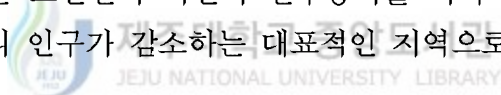


Table 4. Population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nfluence of outflow by factor analysis (1970~2000)

연도 지역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Factor1 score (99.2%)	Factor2 score (99.7%)
제주시	104493	135081	167719	202911	232643	258511	279996	2.83591	1.35789
서귀포시	58160	70166	77275	82311	88287	82298	80860	-1.16122	2.31624
대정	22650	24993	26092	22965	21233	19246	16432	-0.49114	0.07564
안덕	12483	12327	13040	11434	11534	10559	9189	0.24662	-1.00341
남원	18946	21701	23486	23195	22209	19853	16876	-0.07131	-0.40302
표선	10869	11794	12519	11788	11483	10540	9238	0.37977	-1.15517
성산	17872	18978	20413	19833	18377	15639	13391	-0.09804	-0.46038
한림	23015	24107	27119	25487	24660	19359	18257	-0.40074	0.01199
애월	23874	24969	25910	24386	22220	21164	23431	-0.35681	-0.01988
한경	15296	15544	16300	15018	13842	8969	8248	-0.09193	-0.59066
조천	17624	18821	20152	19952	19808	18780	18674	0.12353	-0.66131
구좌	26302	26764	26615	23860	20300	16073	14419	-0.91465	0.53205

라. 회귀분석에 의한 인구규모 및 순위의 영향분석

Table 4의 행정구역별 인구분포의 1980년과 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순위·규모의 법칙(Rank-size rule)³⁾에 의한 행정구역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Fig. 9는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대의 인구규모를 가진 제주시와 제2위인 서귀포시와의 인구규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격차를 비율로 변환한 프라이머시 지수(Index of primacy)를 비교하여 보면, 1980년 2.16이었으나 2000년에는 3.4로 1.5배의 격차를 보여 제주시의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는 순위·규모의 법칙의 회귀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울기와 절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간의 인구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프라이머시 지수(Index of primacy)와 일치하고 있다.

3) 鈴木啓祐, 1973, 都市의 順位·規模法則, 石水照雄, 奥野陸史 編計, 「量地理學」 共立出版, pp. 41~61

Table 5. Regression formula by rank-size rule

year	incline	perforated line	R ²
1980	-0.83	9.24	0.47
2000	-1.37	13.05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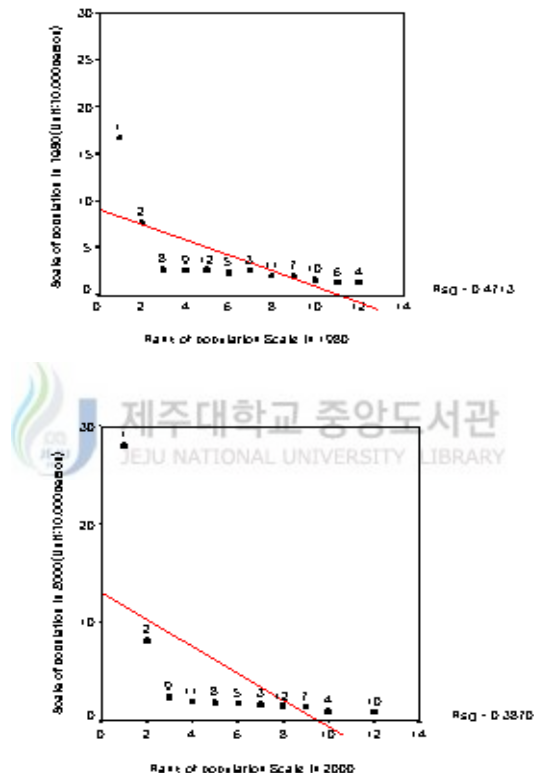


Fig.9 Relation of population size and rank

(1: 제주시, 2: 서귀포시, 3: 대정읍, 4: 안덕면, 5: 남원읍, 6: 표선면, 7: 성산읍 8: 한림읍, 9: 애월읍, 10: 한경면, 11: 조천읍, 12: 구좌읍)

3. 연령계층별 인구점유율 변화

가. 제주도 인구의 연령계층별 점유율 변화

지난 30년간 제주도 인구분포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인구는 크게 감소한 반면 제주시 인구는 높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변화로 인하여 연령계층별 인구 점유율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인구점유율을 토대로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로 한다.

Table 6은 1970~2000년 사이에 연도별로 6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연령 계층별 점유율과 전년도 대비 점유 증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6세~9세 연령층의 점유율은 197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도에는 1.3%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연령층인 10세~14세는 6세~9세 연령층의 감소에 따라 1975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모든 연령 계층에서 6세~14세 연령층 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출산율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연령층인 15세~19세는 1985년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세~29세 연령층은 감소와 증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 이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0세~34세 연령층은 1985년도부터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35세~39세 연령층은 1990년도 이후부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점유율 감소 연령층이 연도가 지남에 따라 연령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0세 이상의 연령층도 점유율이 연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70년도와 2000년도의 점유율만을 단순 비교해보면 6세~24세의 연령층은 감소하고 25세 이상의 연령층은 증가하였다. 특히 6세~14세 연령층의 점유율은 50%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은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제주도 인구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6 The rate of population occupation by the age group bracket (%), ()은 전년도 대비 증감을

연도 연령층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6세-9세	14.6	14.0(-0.6)	12.7(-1.3)	9.0(-3.7)	8.1(-0.9)	5.9(-2.2)	7.2(1.3)
10세-14세	15.6	16.2(0.6)	15.7(-0.5)	14.1(-1.6)	10.6(-3.5)	9.4(-1.2)	7.3(-2.1)
15세-19세	10.3	12.3(2.0)	13.1(0.8)	13.8(0.7)	12.7(-1.1)	10.0(-2.7)	8.7(-1.3)
20세-24세	9.0	8.6(-0.4)	10.6(-2.0)	12.0(1.4)	12.5(0.5)	11.7(-0.8)	8.7(-3.0)
25세-29세	8.6	8.0(-0.6)	7.8(-0.2)	9.8(2.0)	10.6(0.8)	10.5(-0.1)	9.6(-0.9)
30세-34세	8.4	7.5(-0.9)	7.1(-0.4)	7.1(0.0)	9.3(2.2)	9.9(0.6)	10.0(0.1)
35세-39세	7.3	7.4(0.1)	6.7(-0.7)	6.5(-0.2)	6.8(0.3)	9.0(2.2)	9.6(0.6)
40세-44세	5.1	6.2(1.1)	6.3(0.1)	5.9(-0.4)	6.0(0.1)	6.5(0.5)	8.6(2.1)
45세-49세	4.5	4.2(-0.3)	5.5(1.3)	5.6(0.1)	5.4(-0.2)	5.8(0.4)	6.2(0.4)
50세-54세	3.4	3.7(0.3)	3.6(-0.1)	4.7(1.1)	4.9(0.2)	5.2(0.3)	5.5(0.3)
55세-59세	3.4	2.8(-0.6)	3.0(0.2)	3.0(0.0)	4.1(1.1)	4.8(0.7)	4.9(0.1)
60세 이상	10.0	9.1(-0.9)	8.0(-1.1)	8.4(0.4)	9.0(0.6)	11.4(2.4)	13.7(2.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http://www.nso.go.kr>)

나. 제주시와 남·북제주군 인구의 연령계층별 점유율 비교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제주시와 남·북제주군간의 연령계층별 인구점유율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남·북제주군 지역은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의 질적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취학 아동수의 감소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폐교(Table 8 참조)된 반면, 제주시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 초등학교는 취학 아동수의 증가로 학교가 과대화되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학급수가 37학급 이상인 과대학교로는 신광교(62학급), 동광교(61학급), 노형교(54학급) 등 10개교이며 학생수도 신광교(2,477명), 동광교(2,395명), 노형교(2,145명)가 2,000명을 넘었다⁴⁾.

제주시와 남·북제주군 인구의 연령계층별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6세~14

4) 제주일보, 2002.5.18 사회면 기사

세 연령층의 점유율은 1980년 통계까지는 남·북제주군이 높았으나 1980년 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주시가 남·북제주군 보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5세~24세 연령층은 1990년도에는 남·북제주군 점유율이 제주시보다 높았으나 이후 10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여 제주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5세~34세 연령층은 모든 기간 동안 제주시의 점유율이 높다. 35세~49세 연령층에서는 제주시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남·북제주군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남·북제주군 점유율이 제주시 보다 높다.

특히 2000년 통계부터 적용된 65세 이상의 연령층점유율을 보면 제주시가 불과 5.8%인데 비하여 북제주군 16.2%, 남제주군 14.5%로 나타나 농촌 지역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rate of population occupation by the age group bracket in Jeju city, Bukjeju-gun, and Namjeju-gun(%)

연도, 지역 연령층	1970			1980			1990			2000		
	제주시	북군	남군	제주시	북군	남군	제주시	북군	남군	제주시	북군	남군
6세-9세	13.7	14.6	15.3	12.6	12.5	12.8	8.8	7.0	7.4	7.8	6.4	6.6
10세-14세	15.3	16.0	15.5	14.4	16.8	16.2	10.8	10.2	10.3	7.6	6.3	6.9
15세-19세	12.7	8.8	9.8	13.7	12.5	12.9	12.7	13.0	13.0	9.6	7.4	7.1
20세-24세	9.8	7.8	9.3	11.7	9.3	10.4	11.8	13.3	13.7	9.5	8.0	6.9
25세-29세	9.8	7.0	8.9	9.6	5.7	7.5	11.3	9.4	9.6	10.5	8.8	7.7
30세-34세	9.0	7.5	8.6	8.4	5.4	7.0	11.0	6.9	7.5	10.9	8.6	8.3
35세-39세	7.2	7.1	7.4	7.4	5.7	6.8	8.0	5.0	5.5	10.5	7.8	8.4
40세-44세	5.0	5.2	5.1	6.2	6.3	6.4	6.5	5.1	5.3	9.2	7.0	7.8
45세-49세	4.3	4.9	4.3	4.8	6.3	5.5	5.3	5.2	5.7	6.3	5.4	5.9
50세-54세	3.0	3.9	3.3	3.0	4.2	3.6	4.3	5.7	5.8	5.0	5.8	6.3
55세-59세	2.9	4.0	3.2	2.5	3.9	3.0	3.1	5.4	5.2	4.0	5.9	6.6
60세이상	7.3	13.1	9.4	5.7	11.5	7.8	6.4	13.7	11.0	9.0	22.7	21.5
60세-64세										3.2	6.5	6.8
65세 이상										5.8	16.2	14.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Table 8 The present condition of abolition of a school(2002.12.1)

폐교명	폐교년도	소재지	폐교명	폐교년도	소재지
보흥분교장	1983	대정읍	대평분교장	1996	안덕면
황간분교장	1991	추자면	신흥분교장	1996	성산읍
금덕분교장, 상전분교장	1992	애월읍	신창중	1998	한경면
신평분교장	1992	대정읍	신도교	1998	대정읍
상천분교장	1992	안덕면	삼달분교장	1998	성산읍
명월교	1993	한림읍	어음분교장	1999	애월읍
무릉동분교장	1994	대정읍	무릉중	1999	대정읍
신양분교장, 조수교, 용수교	1995	한경면	연평교	2000	우도면
영락교, 구억분교장	1995	대정읍	하천교, 가시교, 화산교	2001	표선면
난산분교장	1995	성산읍	신산중	2001	성산읍
회천분교장	1996	제주시	영천교	2002	서귀포
판포교	1996	한경면	29개교		

(자료: 제주도교육청(시설과), <http://211.248.116.7/main/index.php>)

Ⅲ. 지역별 인구분포변화를 유발시키는 원인분석

1. 도로개설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와 영향

가. 도로 개설 현황

2002년 12월말 기준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5,367대로 집계되어 1.04세대 당 1대⁵⁾로, 1세대 1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였다. 1980년도 5,925대에 불과하던 자동차 대수가 2000년도에는 164,360대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대수에서 2000년도 기준 승용차의 비중이 58%를 차지하여 승용차의 증가가 자동차 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개설, 확장, 보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9.12.31기준 제주도 도로는 국도 4개 노선, 국가 지원 지방도 2개 노선, 지방도 8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 서부를 연결하는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가 1996.7.19일 지방도에서 국가 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고 재정비가 이루어졌다(Table 9 참조).

Table 9 The present condition of road(1999.12.31)

구 분	노선명	기종점	지정연도
국도	5·16도로(제11호) (제주~서귀선)	제주시 관덕정~ 서귀포시 구 남군청	· '38.12.1: 지방도지정 · '63.2.5: 국도지정
	일주도로(제12호) (제1우회도로)	제주시 광양로타리~ 제주시 광양로타리	· '38.12.1: 국도지정 · '52.6.17: 국도지정
	중산간도로제16호 (제2우회도로)	제주시 아라동 2199~ 제주시 아라동 1919	· '67.1.2: 지방도지정 · '81.3.14: 국도지정
	1100도로(제99호) (제주~중문)	제주시 오라로타리~ 서귀포시 중문동	· '69.4.30: 국도지정

5) 제주도 : <http://www.provin.jeju.kr/>

구 분	노선명	기종점	지정연도
국가지원 지방도	서부산업도로 (남제주~북제주군) 제95호	대정읍 보성리~애월읍 광령리	· '38.12.1: 지방도지정 · '96.7.19: 국가지원지 방도지정
	동부산업도로 (남제주~제주선) 제97호	제주시 건입동~표선면 표선리	· '38.12.1: 지방도지정 · '96.7.19: 국가지원지 방도지정
지방도	비자림로 (동부축산관광도로) (제1112호)	구좌읍 평대리 1717- 1~제주시 봉개동 산 78-1	· '60.2.22: 지방도지정 · '79.4.26: 지방도재정비 · '95.10.5: 지방도재정비
	제2산록도로 (제2한라관광도로) 제1115호	안덕면 동광리 산77~ 서귀포시상효동산109-4	· '81.6.17: 지방도지정 · '89.7.28: 구역변경 · '95.10.5: 지방도재정비
	한창로 (서부축산관광도로) 제1116호	한림읍 한림리 1266~ 안덕면 창천리 155-13	· '79.4.26: 지방도지정 · '95.10.05: 지방도재정비
	제1산록도로 (제1한라관광도로) 제1117호	제주시 월평동 산3~ 애월읍 어음리 산7	· '81.6.17: 지방도지정 · '95.10.5: 지방도재정비
	남조로 (남원~조천) 제1118호	남원읍 남원 리201-1~ 조천읍 조천리 2347-3	· '95.10.5: 지방도지정
	서성로 (서귀~성산) 제1119호	서귀포시 상효동108-4 ~성산읍 고성리 322-5	· '95.10.5: 지방도지정
	대한로 (대정~한림) 제1120호	대정읍 하모리 1453-3 ~한림읍 한림리 915-9	· '95.10.5: 지방도지정
	추자로 (대서~예초) 제1114호	대서리 4~예초리 200	· '65.12.27: 지방도지정 · '95.10.5: 지방도재정비

(자료제공: 제주도청)

나. 도로개설과 인구분포변화의 관계

Fig.10~13은 도로개설이 인구분포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0년~2000년까지의 도로개설과 인구분포변화와의 관계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주요 도로를 표시하고 인구수의 증감 정도를 인구수의 구간에 따라 색상별로 표현하여 시계열화한 것이다

남·북제주군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1980년도의 주요 도로는 국도인 일주도로, 5·16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 서부를 연결하는 자동차 통행의 주요 도로 기능을 하였으나 도로의 확장,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주시를 기점으로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주로 이용하여 타 지역을 왕래하는데는 많은 시간의 소요와 불편함이 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이동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주민들이 생활연고지에 상주하게 되면서 남·북제주군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10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1980s

Fig.11의 1990년도 도로현황과 인구분포도에서는 제주시의 인구분포색상이 1980년대의 도로현황과 인구분포도에 비하여 매우 짙게 나타나 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남·북제주군 지역은 얇게 표시되어 인구감소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1985년부터 1995년 사이 제주도 자동차 증가 정도를 보면 1985년 11,961대에서 109,353대로 증가하였고, 승용차는 7,552대에서 58,511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국도의 확장, 보수 및 지방도인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한창로 등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동부, 서부 산업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확장, 정비가 이루어졌다(Table 9 참조). 이러한 도로의 개설과 확장 등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지역간 이동에 시간 단축과 편리함이 증대되어 굳이 읍·면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제주시로 인구가동이 급속하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0년도 인구수 대비 1995년도 인구수의 증감정도를 보면 서귀포시 6.8%, 남군 10.6%, 북군 18.4%의 인구가 감소하여(Table 1참조) 도로개설이 인구분포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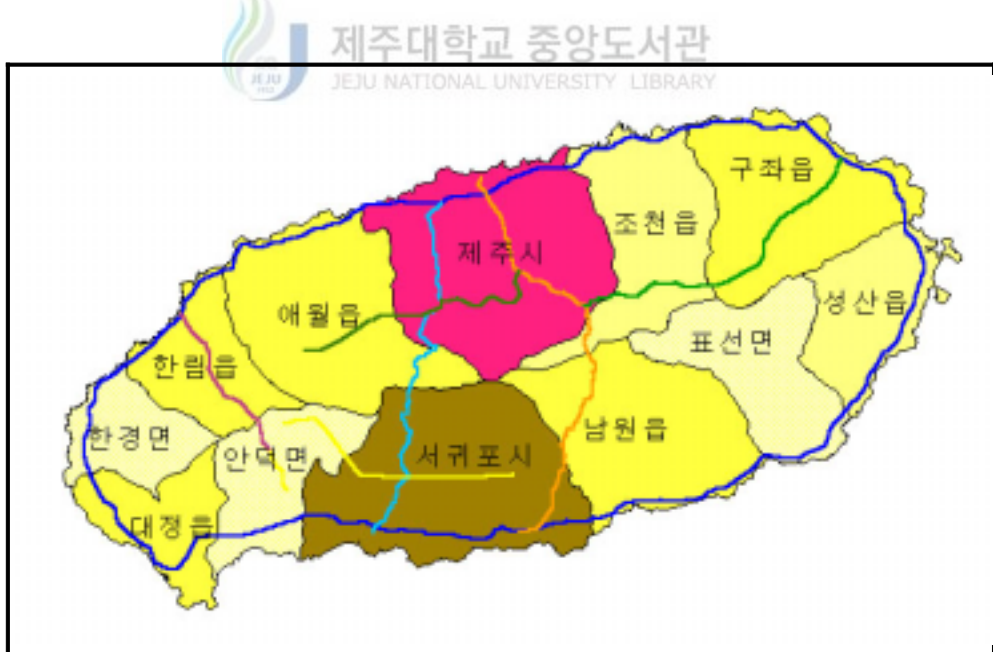


Fig.11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1990s

Fig. 12의 2000년도 도로현황과 인구분포도에서도 제주시와 타 지역의 색상 대비가 더욱 선명하여 지속적으로 제주시로 인구이동의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인구통계결과 제주도 인구 513,260명 중 제주시 인구는 279,999명(55%)으로 제주도 인구의 반을 넘은 반면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있다.

도로개설에 따른 1980년~2000년 지역별 인구분포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도로의 개설, 확장, 정비는 승용차를 이용한 지역간 왕래에 시간단축과 편리함을 초래하여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 지역으로 인구분산보다는 오히려 제주시지역으로만 인구집중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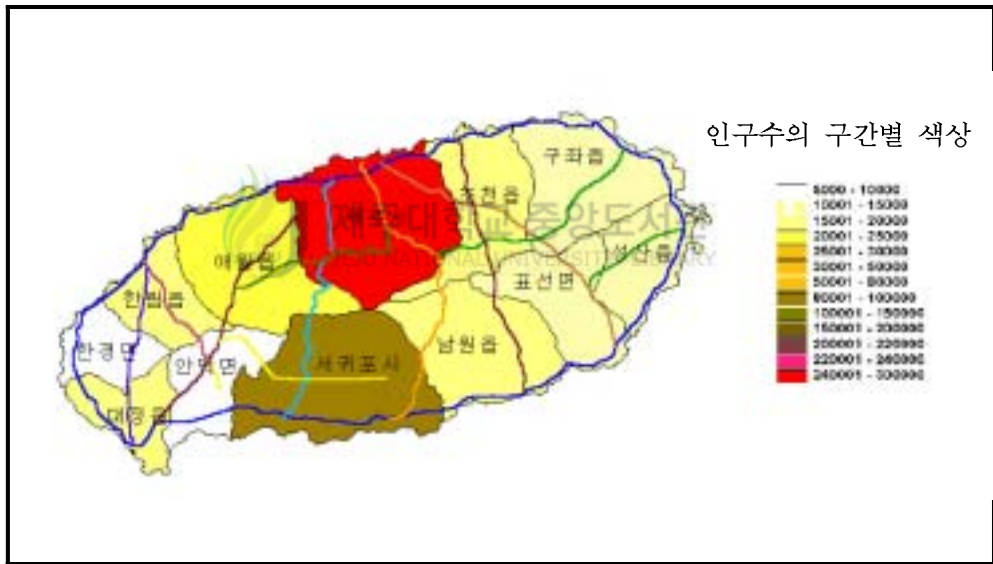


Fig.12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major roads in 2000s

2.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와 영향

도로개설이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구분포의 시계열 변화와 도로개설과의 상관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개설이외에 인구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택지개발을 들 수 있다. 도로개설로 인한 이동시간의 단축은 출퇴근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연고지에 거주할 필요성을 줄이는 한 원인이 되어 거주지 변경 욕구를 발생시켰다. 이때 거주지 변경을 충족시키는 것이 주택확보이다.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택지개발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확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택지개발로 인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은 더욱 주거지 변경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1954년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도 외도지구까지 15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4개 지구(일도, 연동, 화북, 노형)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서귀포시는 시 승격 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서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조성을 위한 동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쳤다.

군 지역에서는 남제주군이 1991년 5월~1993년 4월까지 안덕면 사계지구에 71,048㎡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구변화를 보면 1990년도 통계인구 11,534명에서 1995년 10,559명, 2000년 9,189명으로 계속 감소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제주군은 “돌아오는 농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99년부터 군유지를 이용한 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군 지역의 택지개발은 인구증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서귀포시 택지개발과 인구분포의 변화

서귀포시는 시 승격 후 새로운 주거공간의 확충과 행정, 업무 중심의 신시가지 개발하기 위하여 978,421㎡의 서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1989년 10월에 착공하여 1992년 6월에 준공하였다. 또한 1993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동흥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453,503㎡의 택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택지개발후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90년 통계인구 88,287명에서 1995년 82,298명, 2000년 80,86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인구변화를 보면 주거환경이 양호한 택지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되면서 동흥동, 대륜동, 대천동의 인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의 인구는 감소하여 동간 심각한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나타나고 있다(Table 10 참조).

Table 10 Change of population at dong in Sogwipo city(person,%)
()은 전년도 대비 증감율

연도 동	1985	1990	1995	2000
송산동	8,559	8,504(-0.6)	6,492(-23.7)	5,813(-10.5)
정방동	7,388	7,829(6.0)	4,758(-39.2)	3,506(-26.3)
중앙동	9,540	9,425(-1.2)	5,677(-39.8)	4,798(-15.5)
천지동	7,769	8,160(5.0)	5,648(-30.8)	4,487(-20.6)
효돈동	6,855	7,035(2.7)	6,079(-13.6)	5,448(-10.4)
영천동	5,590	5,717(2.3)	4,812(-15.8)	4,921(2.3)
동흥동	5,193	8,141(56.8)	12,168(49.5)	16,105(32.4)
서흥동	5,413	7,332(35.5)	8,600(17.3)	8,014(-6.8)
대륜동	7,876	7,449(-5.4)	9,956(33.7)	9,804(-1.5)
대천동	5,417	5,696(5.2)	6,633(16.5)	7,198(8.5)
중문동	8,425	8,784(4.3)	7,966(-9.3)	7,245(-9.1)
예례동	4,286	4,213(-1.7)	3,509(-16.7)	3,521(0.3)
합 계	82,311	88,287(7.3)	82,298(-6.8)	80,860(-1.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3. 제주시 택지개발과 행정구역별 인구분포의 변화특징

가.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제주시는 주택보급을 향상과 증가하는 인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도지구, 연동지구, 화북지구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인 노형지구와 동부 지역인 삼화지구 개발이 추진 중이다(Table 11참조).

특히 최근 건축 고도 제한의 완화로 택지개발 추진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건축이 고층화되면서 택지개발지역으로 대거 인구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택지개발로 인한 제주시와 타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11 Present state of development of housing lot district(m²)

지구명	시행(계획)면적			지구 지정일	시행기간
	계	택지조성	공공용지		
계	3,588,165	1,463,222	1,164,943		
일도지구	1,091,736	607,112	484,624	'85.7.31	'89.11.28~ '94.6.30
연동지구	948,816	474,298	474,518	'89.6.10	'92.12.28~ '00.3.31
화북지구	222,288	149,855	72,433	'89.12.29	'92.12.26~ '98.12.31
노형지구	365,325	231,957	133,368	'99.12.15	'00.10.13~ '05.12.31
삼화지구	960,000	-	-	'02.12.31	'03~'07

(자료 : 제주시(도시과), <http://www.jejusi.go.kr>)

나.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용지 구성비 비교

Table 12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에서 주택건설용지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일도지구는 단독주택용지의 구성비가 30.1%로 공동주택 구성비 22.5%보다 높게 구성되어 초기에는 주거형태에서 단독주택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지구는 공동주택 구성비가 단독주택보다 조금 높게 구성되어 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화북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구성비 59.2%, 단독주택 6.6%로 공동주택위주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5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노형지구도 공동주택 53.7%, 단독주택 4.8%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위주로 주택공급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Component ratio of housing construction lot

지구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일도지구	주택 건설 용지	소계	580,839.6	53.2	수용인구 19,760인 (5,200세대)
		공동주택	246,059.5	22.5	
		단독주택	328,369.4	30.1	
		근린생활시설	6,410.7	0.6	
화북지구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49,854.8	67.4	수용인구 8,746인 (2,429세대)
		공동주택	131,505.6	59.2	
		단독주택	14,798	6.6	
		근린생활시설	3,551.2	1.6	
연동지구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90,667.8	41.1	수용인구 18,810인 (5,370세대)
		공동주택	224,378.6	23.6	
		단독주택	158,719.9	16.7	
		근린생활시설	7,569.3	0.8	
노형지구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13,829	59.1	수용인구 9,185인 (3,102호)
		공동주택	196,327	53.7	
		단독주택	17,502	4.8	
		근린생활시설	1,209	0.6	

(자료 : 제주시(도시과), <http://www.jejusi.go.kr>)

다. 택지개발지역 인구분포의 변화

택지개발이 주로 시행된 1980년도 이후 도시 재정비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의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면 시 외곽지역인 삼양동, 오라동, 외도동, 이호동을 제외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일도1동은 1980년도 인구수 11,808명이 2000년도에는 4,464명으로 62.2%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삼도동 또한 1985년도 인구수 기준 38%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택지개발지역 및 시 외곽지역으로 인구가 이동되면서 제주시내에서도 단위행정구역(동)간에 인구분포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Table 13 참조).

Table 13 Change of population at dongs in Jeju city (person, %)
()은 전년도 대비 증감율

연도 동	1980	1985	1990	1995	2000
일도1동	11,808	11,197(-5.2)	10,290(-8.1)	5,741(-44.2)	4,463(-22.3)
이도1동	12,417	12,460(0.3)	12,227(-1.9)	8,774(-28.2)	7,567(-13.8)
삼도1동	25,712	15,648	17,243(10.1)	16,239(-5.8)	15,473(-4.7)
삼도2동		16,811	16,250(-3.3)	11,350(-30.1)	10,395(-8.4)
용담1동	26,867	13,032	13,556(4.2)	11,032(-18.6)	9,901(-10.3)
용담2동		18,746	20,703(10.4)	19,913(-3.8)	19,096(-4.1)
건입동	13,664	14,653(7.2)	13,911(-5.1)	13,127(-5.6)	12,475(-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기존 시가지의 인구감소에 비해 택지개발이 시행된 지역의 동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양호한 택지개발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타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4 참조).

Table 14 Change of population in development district of housing lot
(person,%), ()은 전년도 대비 증감율

연도 동	1980	1985	1990	1995	2000
일도2동	17,583	20,676(17.6)	25,575(23.7)	36,724(43.6)	41,149(12)
이도2동	15,427	21,847(41.6)	27,035(23.7)	36,472(34.9)	40,959(12.3)
화북동	5,324	5,932(11.4)	7,805(31.6)	11,945(53)	21,054(76)
연동	6,467	14,412(122.9)	25,715(78.4)	30,986(20.5)	31,959(3.1)
노형동	3,669	5,751(56.7)	7,843(36.4)	15,482(97.4)	23,216(5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택지개발지역의 인구분포변화를 보면, 연동은 1980년 인구수 6,467명에서 2000년 31,959명으로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77년부터 1991까지 3차에 걸친 신제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이후 시행된 택지개발에 따라 주거환경이 양호한 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1% 정도의 미미한 증가를 나타내어 연동은 이미 인구수용능력에 있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동과 인접 지역인 노형동은 1990년도 이후 높은 인구 증가를 나타내어 앞으로 이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도지구 택지개발지역인 일도2동과 이도2동의 인구 또한 1980년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북동도 1990년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0년도 통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7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Fig.1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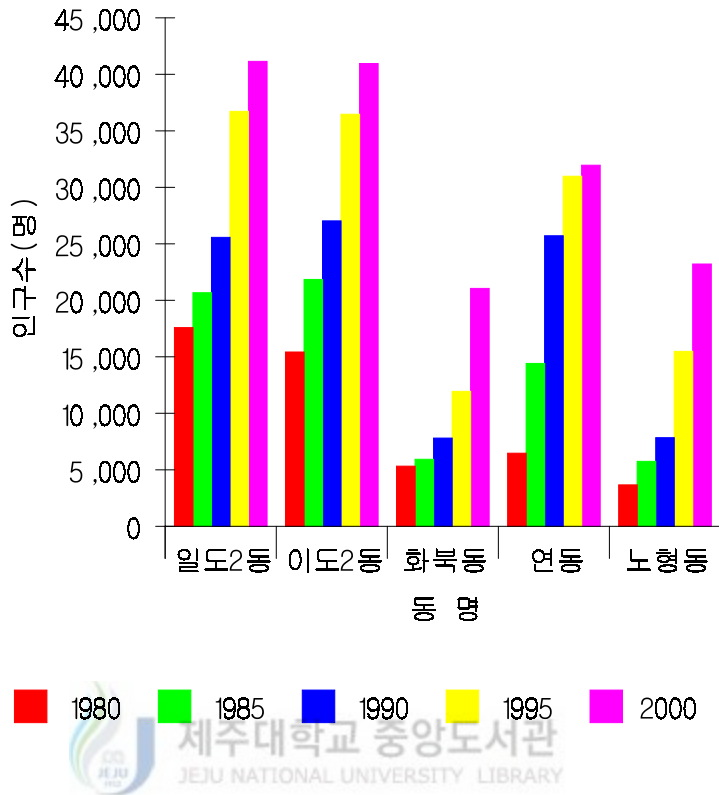


Fig.13 The change of population in development district of housing lot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라. 제주시 동별 인구분포변화의 시계열 분석

Fig.14~17은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제주시 동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5,000명마다 인구분포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색상농도를 구분하여 시계열화한 그림이다.

Fig.14의 1970년도 인구분포도의 색상농도를 보면 일도동 지역 색상이 타 지역보다 짙게 표시되어 인구가 많았으며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지역의 색상도 짙게 표시되어 이들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15의 1980년도의 인구분포도에서는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지역의 색상이 1970년도에 비해 더욱 짙게 표시되어 인구가 증

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16에서도 시 중심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도지역과 연동지역의 색상단계가 높아져 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외곽지역으로도 인구가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17의 2000년도 인구분포도는 택지개발지역인 일도지구(일도2동)와 연동, 화북지역의 색상단계가 더욱 높아져 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시 중심지역의 색상단계는 낮아져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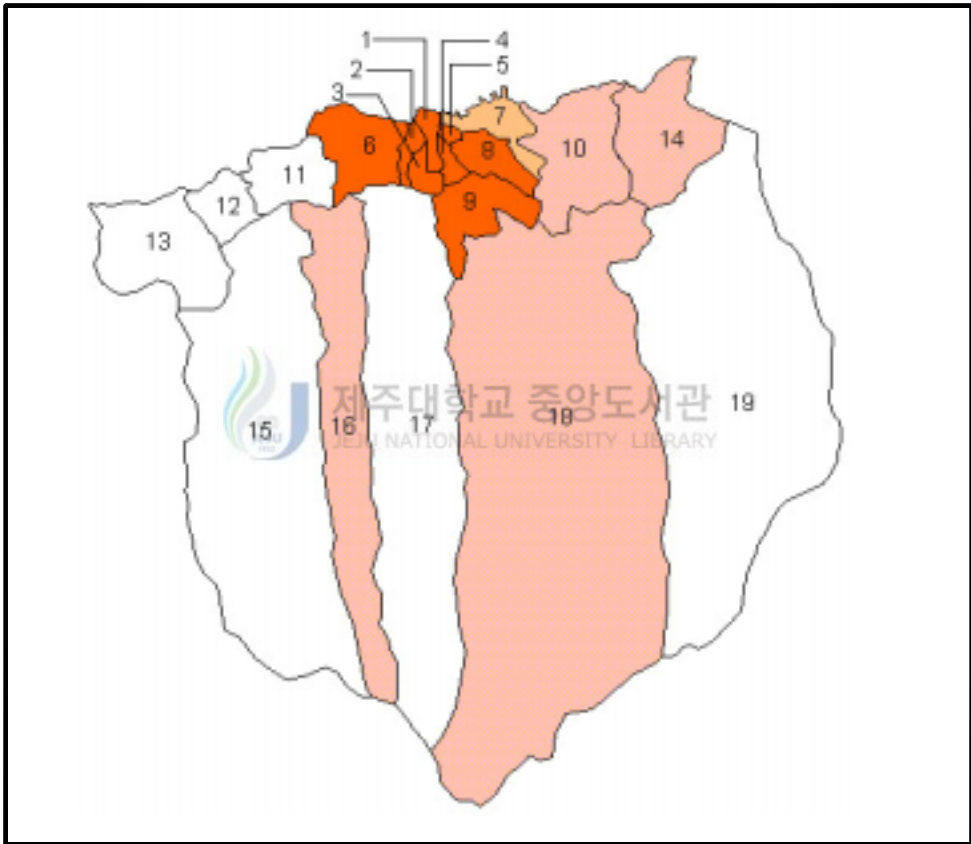


Fig.14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70

(그림 속의 번호는 행정구역을 의미함. 1:삼도2동, 2:용담1동, 3:삼도1동, 4:이도1동, 5:일도2동, 6:용담2동, 7:건입동, 8:일도2동, 9:이도이동, 10:화북동, 11:도두동, 12:이호동, 13:외도동, 14:삼양동, 15:노형동, 16:연동, 17:오라동, 18:아라동, 19:봉개동)



Fig.15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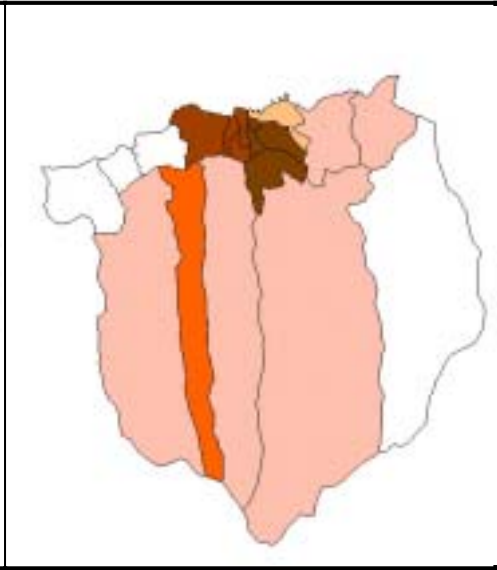


Fig.16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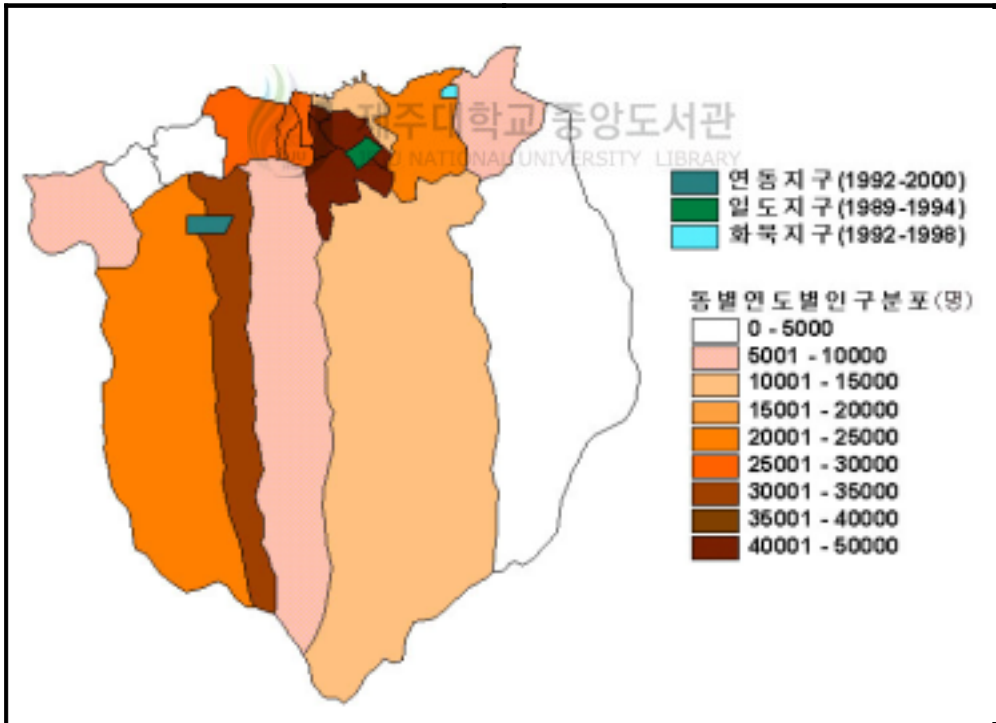


Fig.17 The spread of population in Jeju city 2000

마. 인구분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별 경제영향분석

도로개설과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경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산업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경제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분포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제주상공명감」⁶⁾의 1980년과 2000년의 지역별 산업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분포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Fig.18 참조).

Table 15에서 알 수 있듯이 절편의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산업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의 경제규모를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한림읍의 순으로 거의 인구규모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도의 순위변동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순위변동은 없으나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인 제주시는 산업체수가 약 50,00개에서 20,00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대형 할인마트의 개장으로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폐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제규모 2위인 서귀포시의 경우도 산업체수가 약 2000개에서 약 400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형 할인마트의 개장에 의한 영향도 있으나 Table 4의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인자분석 및 Fig.10~12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에 의한 인구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의 순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대정읍과 한림읍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3위와 4위에서 6위와 8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특히 대정읍과 한림읍은 도로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도로개설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폭이 큰 구좌읍이나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로개설은 많이 이루어

6) 제주도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제주상공명감」은 제주도 전체의 상공인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숙박·음식업점, 서비스·기타업으로 구분 정리하고 있다

졌으나 지역경제의 영향이 미비한 것은 산업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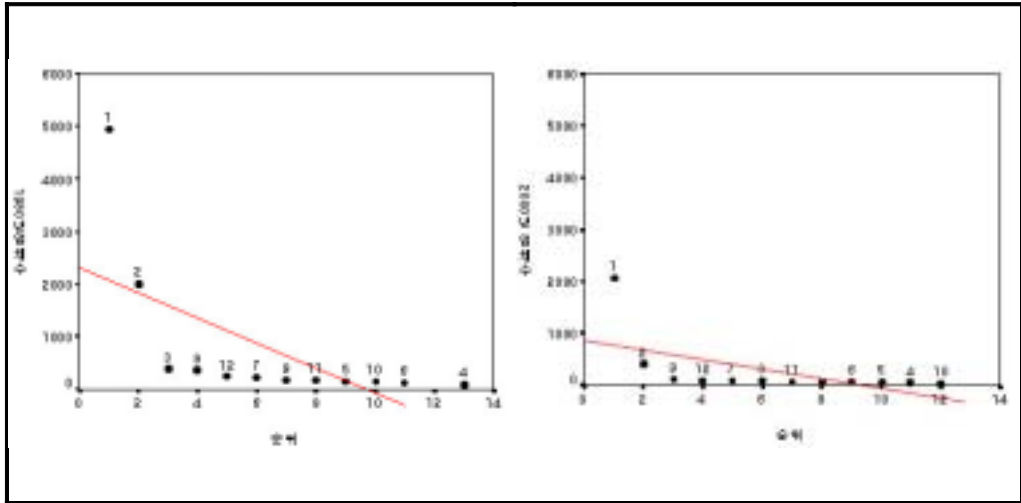


Fig.18 The analysis of economy influence by change of population distribution 1980(left), 2000(right)

(1:제주시, 2:서귀포시, 3:대정읍, 4:안덕면, 5:남원읍, 6:포선면, 7:성산읍, 8:한림읍, 9:애월읍, 10:한경면, 11:조천읍, 12:구좌읍)

Table 15. Regression formula by rank-size rule

year	incline	perforated line	R ²
1980	-240.5	2327.6	0.40
2000	-91.5	580.8	0.33

IV. 인구이동특별조사 원자료에 의한 인구이동 특성분석

1.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이동특별조사 원자료」(1997년도) 중에서 육지 부7)에서 제주도로 전입한자와 도내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자만을 선정하여 제주도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9는 분석대상자의 연령을 0세~96세로 구분하여 각 연령별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0세~19세와 23세~42세사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이동에 따라 그 자녀들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세 이후에는 50세 전후와 60세 전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화되어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이동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비율은 여자가 53%, 남자 47%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Fig.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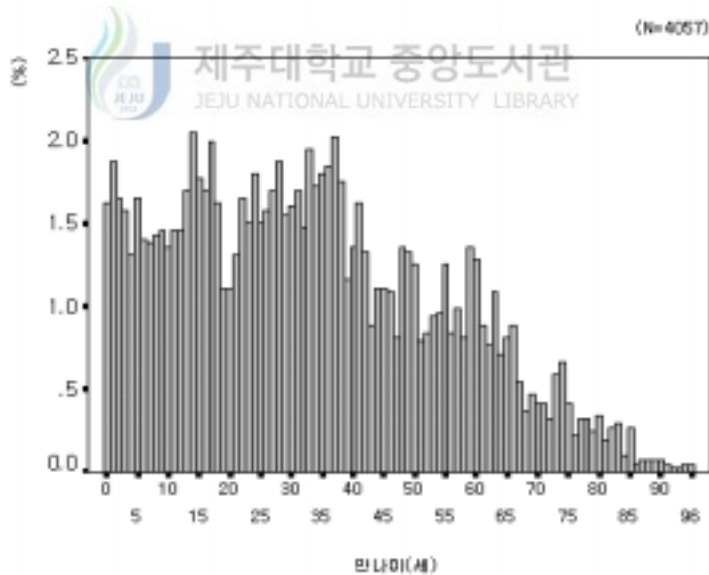


Fig. 19 Age in full

7) 제주도 이외의 타 지역을 일반적으로 “육지”라고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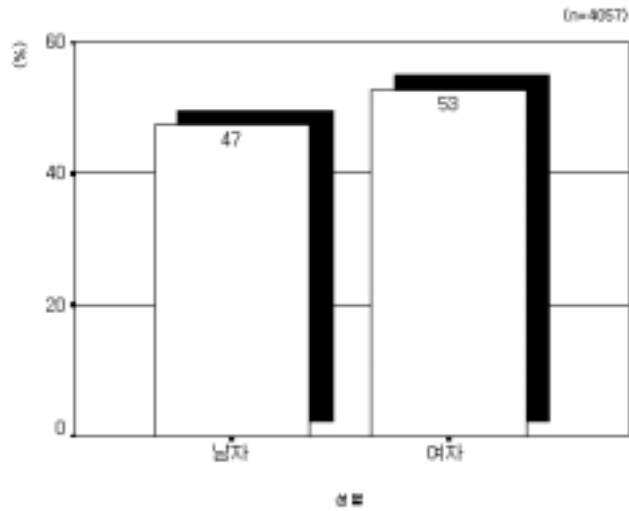


Fig.20 Sex distinction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62%로 나타나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별이 10%인 것은 주로 노령자 연령층에서 배우자의 사망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혼자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육지부에서의 전입자도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Fig.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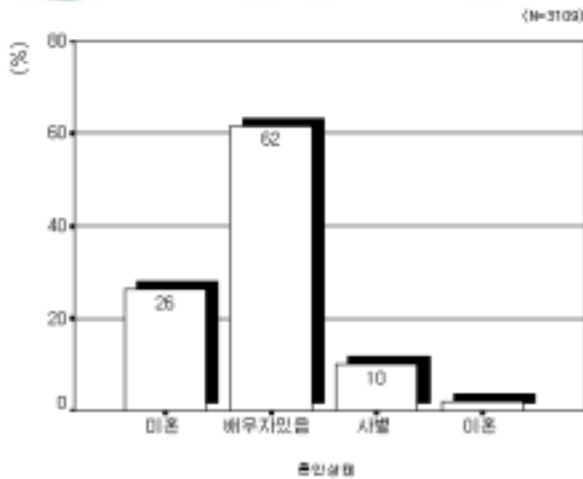


Fig.21 Marriage condition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소, 연로, 장애 등과 통학을 제외하면 구직활동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일하였음이 67%로 나타나 사회의 심각한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이동자 다수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의 14%는 남성보다는 주로 가사를 돌보는 여성이 포함된 비율로 판단된다(Fig.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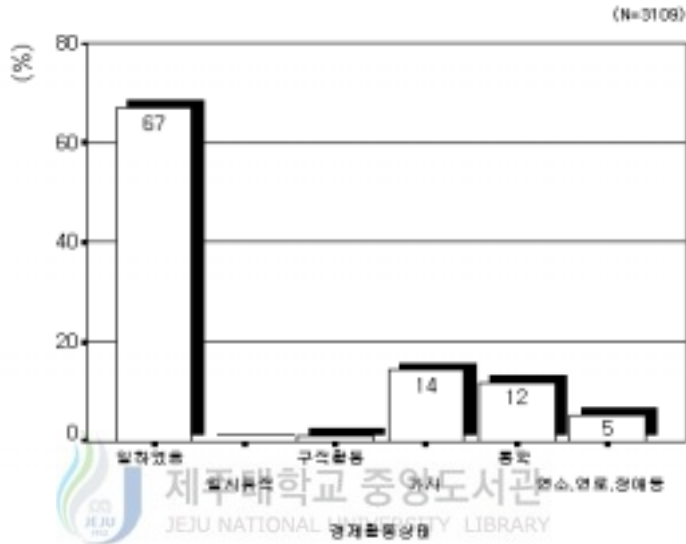


Fig. 22 Economic activity condition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가구주 33%, 가구주의 배우자가 22%, 가구주 자녀 37%로 전체의 97%를 차지하여 가구주 중심의 가족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도 직계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의 이동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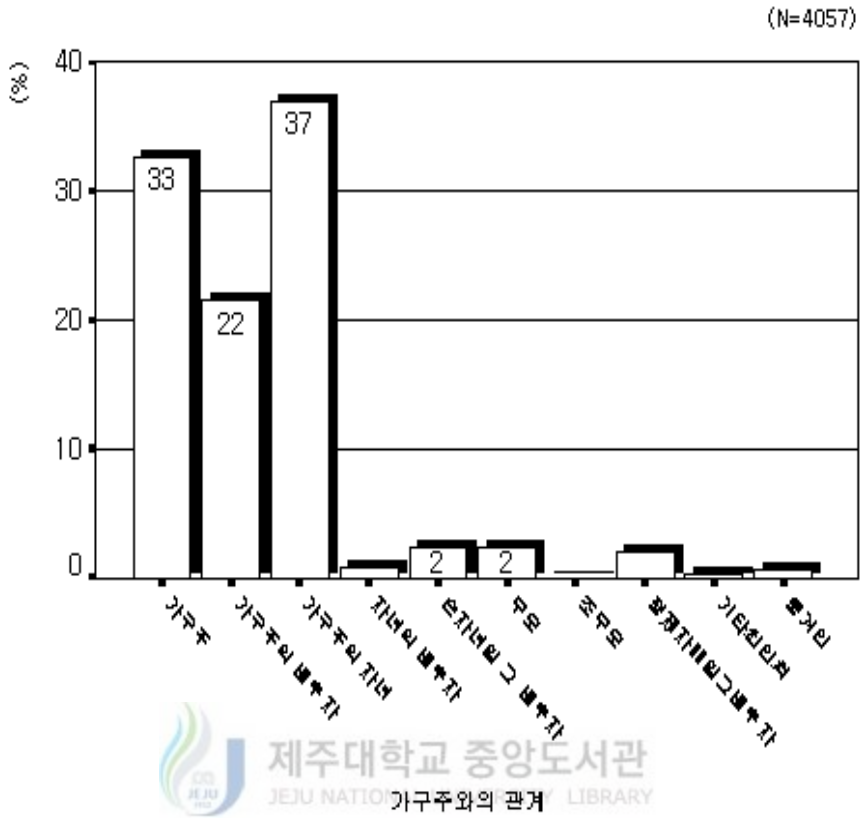


Fig. 23 Relation with the head of household

Fig. 24는 교육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초등학교 20%, 중학교 17%, 고등학교 33%로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70%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저 학력 자일수록 안정된 직업에 대한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 및 일반 직장에 대한 취업기회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하면,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인구이동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 비율이 20%정도를 차지한 것은 취업 및 직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거주지만을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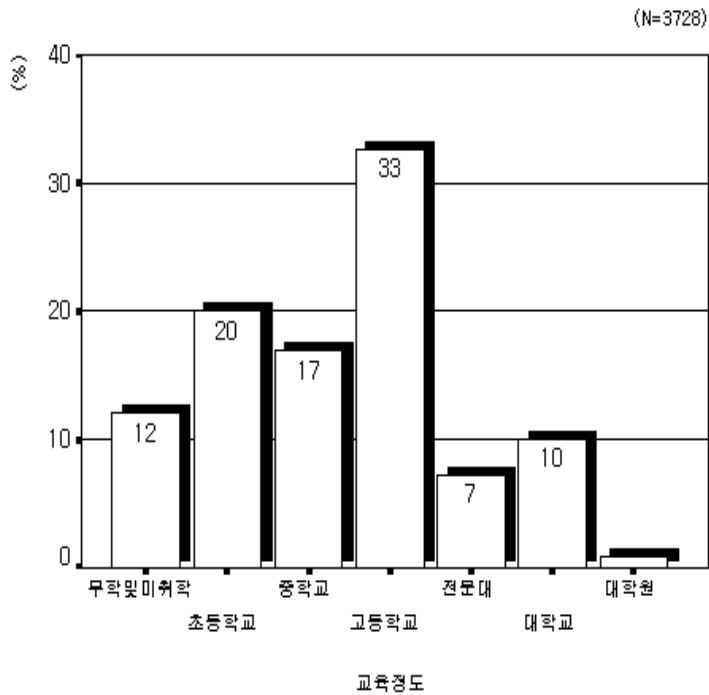


Fig. 24 Educational standar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거의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78%로 높게 나타났는데, Fig.24의 교육 정도를 고려하면 자기 소유보다는 임대 또는 전세로 소규모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 연립주택은 고학력자들의 주택형태로 추정된다(Fig. 25 참조).

소유와 관련된 점유형태의 자가 55%는 대지비용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높은 건축비를 고려하면 Fig.14에서 고학력자들의 주택형태로 추정되는 공동주택 비율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글세 24%, 전세 12%는 북·남군의 인구감소와 제주시의 증가정도를 고려하면 주로 제주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점유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Fig.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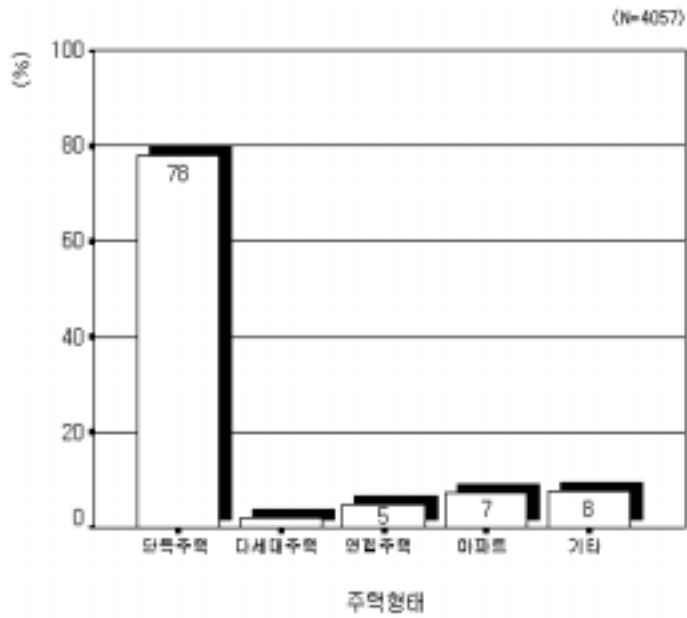


Fig. 25 Type of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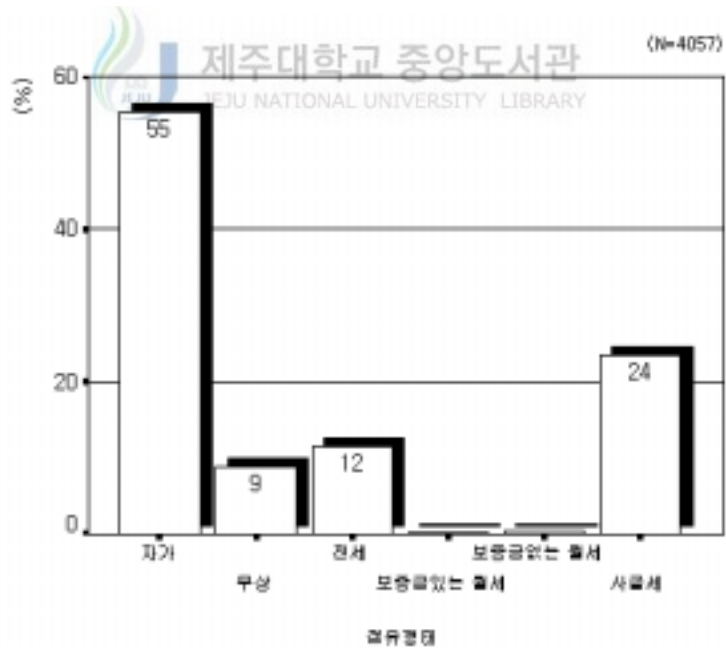


Fig. 26 Type of Occupation

Fig. 27은 주택의 주거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45%가 10~19평에 거주하고 있어 이는 인구이동이 대부분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Fig. 23 참조)을 고려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0평 미만의 15%는 가족단위의 독신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0평 이상의 규모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의 주거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제주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주거규모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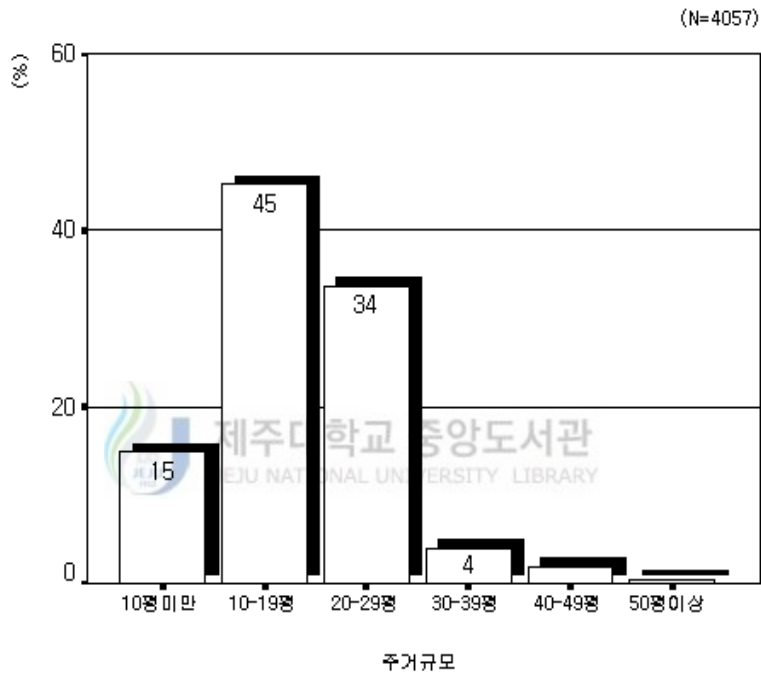


Fig. 27 The scale of housing

V. 結 論

1. 分析 整理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의 많은 요인 중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이 인구분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든가 가설 하에 지역별 인구분포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단순히 도로개설과 택지개발만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많은 요인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에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의 부족과 도로개설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자료보완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남·북제주군 인구는 1980년대부터 감소현상의 뚜렷하고, 서귀포시도 시 승격 초기에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연령계층별 인구점유율에서는 14세 이하의 연령층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보다 남·북제주군의 저 연령층 인구점유율 감소로 취학 아동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 점유율은 20%를 넘어 남·북제주군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도로의 개설, 확장 등이 미흡했던 1980년대는 지역간 왕래에 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을 이용하였으므로 왕래에 걸리는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제주군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의 개설, 확장이 이루어지고, 특히 동부·서부 산업도로의 확장, 정비가 완료되는 1990년대에는 승용차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남·북제주군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도로개설이 인구분포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택지개발이 인구분포변화에서 끼친 영향 분석은 서귀포시는 신시가지 택지개발 완료 이후에 연도별 인구통계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서 서귀포시로 인구가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모두 택지개

발지역으로만 인구가 집중되면서 단위 행정구역(동)간에 심각한 인구분포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제주시의 증가하는 인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은 농촌지역에서 제주시로 거주지를 변경하려는 사람들의 주택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제주도 지향의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택지개발과정에서 종전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아파트)위주로 주택공급이 바뀌면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이들 개발지역으로만 인구가 집중되면서 기존시가지의 CBD(중심업무지구)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CBD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간 인구분포변화에 따른 경제영향은 지역별 기존 산업체수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인구감소 지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개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대부분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학력 이하가 70%를 차지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상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거 부분에서는 7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가 비율은 55% 밖에 되지 않았으며 주거규모는 19평 이하가 60%를 차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展望과 課題

제주도 인구분포변화의 일반적 특성은 과도하게 제주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남·북제주군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는 도로개설을 촉진하고 제주시의 인구증가는 수평적 도시확장의 택지개발을 더욱 촉진하게 되어 더 많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것이며, 반면 농촌지역으로 대변되는 남·북제주군은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동력의 부재 등으로 농가소득의 저하를 가져와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하게 되어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불균형 성장은 산업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인구학적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을 물리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주시와 인접한 애월읍과 조천읍에 소규모 신규교외 택지를 개발하여 제주시로 집중하는 인구를 주변 농촌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제주시 중심의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은 인구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1차 산업에 편중된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군의 산업 구조 재편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개발의 육성, 행정·경제·교육·문화·복지 제반시설의 의도적인 분산 등을 통한 삶의 질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박경원(1983). “한국 도시화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문(1990).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영(1991). “우리나라 인구이동과 도시성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호(1991).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1993). “한국의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홍석(1998). “한국의 도시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제주도시계획재정비], 제주시, 2002
- [제주경제현황], 제주상공회의소, 2002
- [제주상공명감], 제주상공회의소, 1980, 2000
- [도시계획 40년사], 제주시, 1994
- [제주시통계연감], 제주시, 1980, 1985, 1990, 1995, 2000

제주일보, 2002. 5. 18 사회면 기사

◁ 인터넷 사이트 ▷

http://achs.kedi.re.kr/text_book/class_3/sm/smm16_02.html)

<http://www.nso.go.kr>

<http://www.cheju.go.kr>

<http://211.248.116.7/main/index.php>)

<http://www.provin.jeju.kr/>

<http://www.jejudi.go.kr>